

종합·해설

鄭-文 단일화 무산됐다

‘동상이몽’속 막판 합의 실낱 희망

鄭 “평화세력 단일화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文 “부패수구세력 집권 저지 기회 남아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다. 막판 대타협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효과도 미지수다.
9일 정동영 후보는 “부패수구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도와야 하나 신당 쪽에서 세력 중심의 단일화만 요구했다”며 “지난 실정에 대한 반성 없이는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뼈대를 밝혔다.
전날 문 후보 선대위도 “이제 현실적으로 공개토론회 무산된 만큼 (문 후보가 제안했던 공개토론회)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 정경미 공보 특보는 “수구부패세력 집권 저지를 위해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단일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문 후보의 단일화 거부 선언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같은 후보 단일화의 무산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중앙선거위의 ‘단일화 토론 TV 생중계 불허 방침’이지만 두 후보의 근원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신당 정 후보는 문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해 ‘이명박-이회창-정동영’의 3강

구도를 ‘이명박-정동영’의 2강 구도로 전환시키고 민주당 이인제 후보측에도 단일화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문 후보는 토론회를 통해 참여정부의 실정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정 후보를 사퇴시키고 본인이 이명박 후보와 맞설 개혁진영 후보로 나서야 이길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 후보 측 내부에서는 ‘독자노선파’와 ‘후보 단일화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뿐 아니라 이후 총선까지 세력을 유지하겠다는 문 후보 측 입장에서는 정 후보에게 개혁진영 후보자리를 양보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면 존립 기반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후보 선대위는 “문 후보가 부패세력 집권저지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에게 결단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측도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며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단일대오를 위해 대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양측 모두 극적인 단일화 성사 가능성에는 문을 열어뒀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19일 선거 직전 문 후보가 막판 결단을 통해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9일 대통합민주신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7차 본부장단 회의에서 정대철 총괄선대위원장(왼쪽)이 김경준 씨와의 면회 내용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화 자부심 없어 盧후보 지지 철회”

정몽준, 5년전 이유 밝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8일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막판에 철회한 것과 관련, “노 후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대해 자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입당 뒤 이명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그는 이날 밤 KBS-1TV를 통해 방영된 이명박 후보 지지 한조연설문을 통해 “(노 후보는) 한미관계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언동을 계속했다. 그래서 저는 ‘욕을 먹더라도 지금 먹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욕도 많이 먹었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시선도 받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몽준이는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전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국면이 거지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실이 그렇더라도 저는 제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노 후보가 잘해주시기를 바랐다”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때의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이명박 지지

지지후보 선전 조합원 투표

한국노총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1~7일 벌인 결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정책연대 지지후보 선전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이명박 후보가 9만 8천 296표(지지율 41.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함께 정책연대 지지 후보 대상에 올랐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7만 3천 311표(31%)를 얻어 2위를 차지했고 무소속인 이회창 후보는 6만 5천 723표(27.5%)를 얻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이명박 후보와 10일 오전 11시 정책연대합의체결식을 가진 뒤 공개 지지를 선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나라와 연대?

이인제 후보의 낮은 지지율로 향후 진로와 관련,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민주당에 난데없는 ‘한나라당과의 연합정권론’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의는 있었지만 일단저에 거절했다’며 필적 뒤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인제 후보의 낮은 지지율과 당내 현역 의원들의 ‘정동영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로 머리가 아픈 민주당에 ‘한나라당과의 연합정권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수도권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연합정권론’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예전 ‘DJP 연대’처럼 선거 공조를 통해 연합정권을 만들자는 것.
현재의 상황으로는 내년 총선의 참패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한나라당과의 연대에는 극적인 지역 갈등 해소라는 명분과 함께 일부 국공위원과 비례대표 ‘배지’라는 전과물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의 제안은 있었으나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는 입장과 함께 “어쩌다 민주당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인기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 일부 인사들이 이 같은 얘기를 하기에 당장 그만두라고 호통을 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일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한나라당과의 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종필 대변인은 “한나라당 일부에서 제의는 있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최경주 광주지사 위원장은 “일부 수도권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법 퀴즈 풀고 상품도 타고

광주일보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현상퀴즈를 실시합니다. 선거법 현상퀴즈는 매주 월요일 한번씩 출제되며 두 문제를 모두 맞춘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명에게 고급 전자칠판을 우송해 드립니다.
문1) 다음중 대통령선거기간중에 개최가 가능한 모임은 무엇일까요?
① 향우회 ② 주민자치위원회 ③ 반사회 ④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문2) 다음중 선거운동기간중에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일까요?
① 무료 교통편의·식사 제공 ② 호별방문
③ 상대후보자 비방 기자회견 ④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응모요일 = 엽서에 문1)과 문2)의 정답을 적어 <우편번호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 광주일보사 편집국 선거법퀴즈 담당자>으로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지나중 정답풀이
문1) 다음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②>
① 후보자 ② 마을이장 ③ 후보자의 배우자 ④ 선거권자
문2) 정치자금기부 기탁금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받는 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 ()까지는 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정답 ①>
① 10만원 ② 20만원 ③ 30만원 ④ 40만원
※지나중 퀴즈 당첨자 : 홍정국 여수시 둔덕동 583 중앙하이츠아파트 관리사무소
光州日報社 전남남도선거관리위원회

鄭·昌 “상부서 김씨 진술 반복 요구”

신당 “檢 탄핵소추안 발의... 국조권 발동”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측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9일 검찰이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으로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김경준씨에 대한 진술 반복을 요구하는 등 짜맞추기 수사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총공세를 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어 수사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김씨에 대한 ‘진술 반복 유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팀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감찰을 촉구하는 한편 오후 시내 광화문 네거리에서 정동영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검찰 수사조작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신당은 이해찬 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정치검찰-이명박 유착 진상 규명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과 검찰이 합작해 국민이 피 흘려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10일부터 열리

는 임시국회에서 ‘검찰 탄핵소추안’ 발의, 국조조사권 발동,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은 전날 당 소속 변호사 3명과 의면담에서 김경준씨가 자필로 쓴 A 4용지 3장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도 이날 검찰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뒤 당초 태도를 바꿔 한글 이면계약서를 김경준씨 혼자 작성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요

구했다며 김경준씨와 접견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검찰의 ‘BBK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인물인 김경준씨를 변호해 온 오재원 변호사가 돌연 사임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 변호사는 김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계속 사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동영 후보가 어제 청와대 검찰의 BBK 수사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자신을 황태자로 키워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발표의 책임이 있는 양 생떼를 부렸는데 이는 자신의 주군이었던 노 대통령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개강 12월 3일 시작반(주,야)
새롭 행정고시학원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계열학 교육학+전공특강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리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현대고시학원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개강 12월 17일 주·야 (총합)반 모집
무등고시학원

2008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참임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계열학 대특강
개강 1차 12월 17일 2차 12월 22일
한빛공무원학원